



말레이시아항공 스텔러디스인 아지아 씨는 전통의상이자 유니폼인 바주크바야가 여성스러움을 강조해줘 평소에도 즐겨입는다고 말했다.

# ‘오래된 것’을 ‘오늘의 것’으로 연출 젊은이도 즐겨 입는 전통 옷 됐다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62>

8부 말레이시아편

6 생활속 옛 것 지키기

미리=글 양세열·사진 김진수 기자

승무원 유니폼 ‘바주크바야’  
블라우스·드레스 결합된 형태  
전통 직물 대신 실크·면 사용  
신축성 좋고 땀 배출 잘돼 편리  
몸매 드러내 여성스러움도 강조  
인도네시아·필리핀에서도 입어

“전통 복장이러셔 입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고 활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입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던 옷이라고 해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그 옷을 지금 상황에 맞게 연출해서 입는 게 진짜 전통 아닐까요?”

말레이시아 미리 공항에서 만난 비비 아지아(Bibi Aziah 여·25)씨는 전통을 단순히 ‘오래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서 국제선 스텔러디스를 하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말레이시아 승무원 유니폼인 바주크바야(Baju Kebaya)가 평상복이자 가장 훌륭한 드레스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항공 국제선 승무원들은 짙은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한다. 발목까지 길게 늘어진 치마는 앞쪽에 무릎높이로 절개돼 여성스러움과 활동하기 편리하게 했다. 소재 역시 신축성을 더해 움직임이 자유롭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 무더운 동남아지역을 자주 오가는 항공사라는 특성을 반영해 땀이 쉽게 배출되도록 만들었다.

비비 씨는 바주크바야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복장이라는 점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바주크바야는 코타키나발루나 쿠칭, 카뭇 등 지역을 막론하고 거리 어디서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옷이다. 말레이시아 젊은 여성들이 즐겨 입는 바주크바야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일부에서도 입는 옷으로 블라우스와 드레스가 결합된 형태다. 과거 꽃이나 사람, 뱀 등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전통 직물로 직접 만들어 입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실크나 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만들어진 옷이 판매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 중 하나인 바주쿠룽(Baju kurung)은 넉넉한 품으로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이와 달리 바주크바야는 블라우스와 치마 모두 몸에 딱 맞게 입음으로써 몸 전체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어렵다. 대신 몸 전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바주크바야를 통해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전통은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의상이자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는 교복이 됐다.



말레이시아 전통복장은 오래되고 불편한 옷이라는 인식 보다는 명절이나 혼례식처럼 중요한 날에 입는 특별한 옷으로 사랑받고 있다.

## ‘문화 용광로’ 말레이시아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1910년 유정 발견된 미리

‘오일타운’ 자부심 상품화

노끈으로 만든 가방 기념품도

‘문화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일상 속 평범한 소재에서 특별함을 발굴해내는 데 능하다.

말레이시아 소수민족 마을이나 공항 면세점 등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방이 있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원색으로 만들어진 가방은 플라스틱

노끈으로 제작한 것이다. 사과나 배 등 과일상자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딱딱한 플라스틱 노끈을 꼬아서 만든 가방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다. 평범한 소재를 특별하게 하는 이들의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사례는 또 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아름다운 해안도시 미리. 이곳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발견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 코타키나발루, 쿠칭 등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에는 이름이나 상징하는 동물을 그린 기념품이 많다. 그런데 미리에서 판매하는 티셔츠에는 ‘오일타운 미리’(OIL TOWN MIRI)라는 문구가 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작은 도시는 지난 1910년 유정이 발견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정이 발견되고 정유공장 본거지가 들어선 지역인 미리는 석유 박물관(Grand Old Lady & Petroleum Museum)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미리는 이를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유정이 발견된 해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현지인들은 오일타운 미리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 미리에서 발견된 석유가 말레이시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난 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품으로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끈과 비닐을 엮어 만든 파우치.



‘오일타운 미리’라고 새겨진 티셔츠.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b>1일째</b>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조식후-아침이 이쁜순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레킹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방)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b>2일째</b> 조식후-민공예물전시장-조랑말체험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예코랜드-가자타고곳자왈(자연전시관)술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방)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b>3일째</b>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포항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불포항사항 : 옵션(현지직방), 기사, 가이드료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불예약시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 참가인원 20명 미만은 별도 보충 가능합니다. ※ 본상품은 수송대기입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 문의

###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호텔 4인실), 줄낙시,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구 H.P : 010-3999-3226

황해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시 : 문명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해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명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